



### 2015 광주 판타지4 뮤직 페스티벌

<24일~8월 9일 상무조각공원 옆 무대>

## 도심속 야외 클럽서 흥겨운 DJ 파티

흥겨운 DJ 파티, 치맥 축제, 풀 파티... 한여름을 뜨겁게 달궂는 '2015 광주 판타지4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광주 서구 상무조각공원 옆 공터에서 열린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인터캐맥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규모 DJ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360도 에어돔 미디어파사드 DJ 공연' 및 풀 파티, 광주 최초의 대규모 푸드&치맥축제, 주간 야외수영장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DJ 뮤직 페스티벌'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의 전문DJ와 연예인DJ, 로컬 DJ가 참여, 20~30대 층을 겨냥한 뮤직 페스티벌로 꾸며졌다.

개막일인 24일에는 디제이 춘자(CHUNJA), 페리(FERRY), 한민 등이 출연하고 둘째날인 25일에는 디제이 구준엽(KOO), 페너(FENNER), COOL K 등이 참여해 무대를 빛낸다.

'360도 에어돔 미디어파사드 DJ 클럽'은 '대형 에어돔 복합 DJ 공연장 존'으로 꾸며지며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된다. 에어돔에서 펼쳐지는 국내의 정상급 DJ 공연은 밤 9시부터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환상적이고 차별화된 콘텐트로 구성된 360도 영상미디어 쇼와 함께 최고의 판타지를 느낄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 하이라이트인 에어돔(직경 34m 높이 8m)에는 600여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으며, 내·외부에 화려한 영상소가 수놓아진다.

지금까지의 DJ 페스티벌이 주로 해외DJ 중심으로 개최돼 관객들이 고가의 입장료를 내야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저렴한 가격(2만원)을 책정, 부담을 줄였다.

22일 개장한 야외수영장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는 주간 야외수영장, 야간에는 DJ 풀 파티장도 함께 운영된다. 야외 수영장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곳으로, 선베드와 카바나등, 비치데이블 등이 설치돼 도심 속에서 최고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음료와 스낵 코너 등이 상시 운영되며 최고시설의 성인 풀장, 패밀리풀장, 어린이풀장, 유아풀장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에어돔 외부의 360도 영상소와 다양한 공연의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푸드&치맥축제가 진행된다. 푸드&치맥축제는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과 한류음식이 한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15 광주 판타지4 뮤직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www.fantasy4.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예매 1899-4841, 인터넷 예매 디스코(www.discountcoupon.c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춘자

구준엽·춘자·페리... 유명 DJ 총출동 360도 영상미디어 쇼 등 판타지 선사 푸드&치맥축제·야외수영장도 운영



페리



구준엽

## 도난 당했던 18세기 선암사 불화 귀환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문화재청·조계종 지난 6월 환수

미국 경매에 나왔던 순천 선암사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神師眞影)'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6월말 환수한 이 그림을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했다.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비단 채색·97×65cm)은 18세기에 활동했던 승려인 '동악당재인대선사'를 그린 초상화로, 선암사 진영각(仙巖寺 眞影閣)에 보관돼 있었다. 동악당재인대선사는 정유재란 이후 피폐화된 선암사를 증창하고 승풍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로 전해진다. 이 그림은 의겸이라는 화승(畫僧)의 수제자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진영(眞影, 고승을 그린 초상화)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1999년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는 '乾隆三年癸亥二月〇日'(건륭3년 계해2월0일)로 기재된 점으로 미뤄 1738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건륭은 1735년 즉위한 청나라 고종 건륭제의 연호다.

문화재청은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진영으로 평가된다"며 "현재까지 해외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한 미국인이 경매에 이 그림을 출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통해 불법반출된 문화재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매소에 도난 문화재를 통보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미국인과 2개월간 협상한 끝에 기증 형태로 돌려받게 됐다. 한편 조계종은 환수한 진영 일부를 손본 뒤 소장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박영철 작 '불량도비'

## 전시장의 '납량 특집'... 무더위 확 달아나네

내달 1일까지 대인예술시장 다다 창작스튜디오

전시장에서 만나는 공포, 익살과 해학, 시원한 물줄기로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보내는 건 어렵다.

대인예술시장 '다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달 1일까지 '납량(納涼)'을 주제로 지역 작가 27명을 초청, 7월 세시봉 전시를 진행한다.

고재근의 '페르소나'와 강선호의 '잊혀진 사내', 이재문의 '샌드맨'은 불안한 현재와 전망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표현했다. 박재완의 '돈아 돈아'와 이다애의 '유쾌한 상상'은 돼지를 희화한 그림으로 웃음을 준다.

윤남웅은 '봉땀'에서 봉이 되지 못한 닭을, 이기원은 '운명의 날'을 통해 복날 아침 닭의 운명을 집짓 엄숙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 박영철은 '불량도비'를 통해 도깨비들의 복날 풍경을 익살맞게 보여준다. 박종석의 '냉면', 장운환의 '보양식', 김태성의 '복날'은 보는 것만으로도 원기가 넘쳐나는 작품이다.

김창현의 '피서삼매경'과 김향득의 '영산강 시원-용소', 박정주의 '집은-얼마나 더 견디야 할까'는 관객들을 계곡과 바다로 이끈다. 문의 010-2620-8614. /김경인기자 kki@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동산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